

—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2018 · 12

맑음은 개인의 청정음,
향기로운은 그 청정의 사회적 메아리를 뜻합니다. - 法 頂





진흙 속에서도 티 한 점 없이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연꽃은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2018 / 12

다시 읽는 산방한담	04	부자보다 잘 사는 사람이 되라
처음 마음으로	10	불자다운 삶의 태도
길상사 시간여행	13	길상사 가람에 대해서 ③
아름다운 마무리	18	12월 결연 대상자 - 김미연(가명)
나눔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20	이태영 변호사
공감으로 소통하실래요	23	먼저 생각하라, 그런 다음 말하라
모단 에ッセ이	26	단념
세계 일주 시작이 반	29	마사이 사람들
시심청심	32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옛날 사람처럼 먹어라	34	경동시장의 겨울 풍경
맑고 향기롭게 활동소식	37	중앙모임 / 지역모임 소식
길상사 소식	49	



사진·박형준 「인연」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며 삽시다 • 화내지 말고 웃으며 삽시다
• 나 혼자만 생각 말고 더불어 삽시다.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나누어 주며 삽시다 • 양보하며 삽시다 • 남을 칭찬하며 삽시다.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우리 것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 꽃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가꾸며 삽시다
• 덜 쓰고 덜 버립니다.

(사)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는

우리들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자는 순수시민단체로 본 소식지를 발행합니다.

2018년 12월 1일 발행 / 통권 286호 / 신고번호 성북라00004호 / 1999년 6월 23일 등록

발행인 및 편집인 이형준 / 편집장 홍정근 / 편집위원 엄현경, 주소영

발행처 맑고 향기롭게 모임 : 서울시 성북구 선잠로 5길 68(성북동 323번지) 길상사 내

전화 (02)741-4696 전송 741-4698

인쇄인 · 인쇄처 디자인나경 유경은

대구모임 : (053)753-8883 / 경남모임 : (055)266-0710 / 광주모임 : (062)236-3129

<http://www.clean94.or.kr> / E-mail : clean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모임을 후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정스님에 의해 창건된 사찰입니다.

전화 (02)3672-5945 전송 3672-5947 / <http://www.kilsangsa.or.kr> / E-mail : kilsangsa@hanmail.net

부자보다 잘 사는 사람이 되라

글·법 정(法 頂)

올 한 해도 저물어 갑니다. 저도 오늘 나으면서 지난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는가, 제 삶의 자취를 되짚어 보았습니다. 과연 잘 산 한 해였는지 잘못 산 한 해였는지 되돌아보았습니다.

세월은 오는 것이 아니라 가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끔씩은 그 말이 실감 납니다. 하지만 그런 데 속지 마십시오. 세월은 가지도 오지도 않습니다. 시간 속에 있는 사람들이, 사물과 현상이 가고 오는 것입니다. 철학자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시간 자체는 항상 존재합니다.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있을 뿐입니다. 시간 속에 사는 우리들이 오고 가고 변해 가는 것입니다. 무상하다는 것은 시간 자체가 세

월이 덧없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 속에 사는 우리들이 예측할 수 없는 삶을 살고 늘 한결같지 않고 변하기 때문에 덧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생애 중에서 한 해가 이와 같이 신속하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해가 바뀌면 어린 사람들은 한 살이 보태집니다. 그러나 나이 든 사람들은 한 살이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를 부여할 수 없는 시시한 일에 시간을 낭비하면 우리 생이 무척 아깝습니다. 세월은 흘러가는 물과 같아서 한번 지나가면 되찾을 수 없습니다. 매 순간 후회 없이 잘 살아야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느 선방에 이런 표지가 있습니다. ‘생사사대 무상신속(生死事大 無常迅速)’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것이 바로 생사입니다. 나고 죽는 일입니다. 한순간이라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리저리 흔들리고 종잡을 수 없는 것이 생사입니다. 우리 삶에서 생사는 큰 의미를 지닙니다. 그 생사 속에서 무엇이 받쳐 주고 있는가? 무상이 신속하다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영원한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언제나 변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한 생각 잘못 먹으면 엉뚱한 길로 나아가고, 한 생각 바로 정신을 차리면 바른 길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들은 이야기입니다. 아는 분이 택시를 타고 길상사로 가자고 하니 까 택시 기사카 “아, 그 부자 절 말이 죠?” 하더군요. ‘부자 절이라는 그 말이 제게는 한동안 화두가 되었습니다. 8년 전 이 절을 처음 만들 당시, 교회

나 절 어디 할 것 없이 물질이 넘치고 과소비가 지나치기 때문에 가난한 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피력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일부에서겠지 만 길상사를 부자 절이라 일컫는 것을 보고 매우 착잡했습니다. 요정이던 대원각을 절로 만들 때 신문 방송에서 얼마나 시끄럽게 떠들었습니까? 땅이 수천 평이고 땅값만 수백억이라는 보도가 나와서 부자 절이라는 인상이 심어진 것 같습니다.

한동안 여러 곳에서 저한테 편지가 많이 왔습니다. 주로 물질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절을 저의 개인 소유로 잘못 알고 도와 달라는 편지들이 와서 곤혹스러웠습니다.

부자의 뜻은 대체 무엇입니까? 국어 사전에 보면 부자는 살림이 넉넉한 사람, 재산이 많은 사람이라고 간단명료하게 풀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라는 항목 아래에 이런 속담들이 나옵니다.

‘부자가 더 무섭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 가난한 사람들보다 부유한 사람이 더 인색하다는 말입니다. 많이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나눌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망해도 3년 먹을 것이 있다.’ 그만큼 많이 축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은 망해도 기업주는 망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또 ‘부자에게도 한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아무 걱정 없는 것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부자가 되기까지 나름대로 한이 맺혔을 것입니다. 가난을 면하기 위해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전심전력을 기울여 굶어모은 결과로 부자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부자가 하나면 세 동네가 망한다.’ 저는 이 말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농경사회에서 이루어진 속담입니다. 옛날에는 지주들이 있었습니다. 조선 시대 말기나 일제강점기 때

못된 지주들이 소작인들을 얼마나 많이 수탈했습니까? ‘부자가 하나면 세 동네가 망한다.’는 것은 그 인근 사람들이 다 착취당했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경전에는 탐욕이 바로 생사윤회의 근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탐욕이란 지나치고 분에 넘치는 욕심입니다. 자기 그릇보다 더 많이 채우려고 하는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얼마만큼이면 만족할까요? 이것은 있는 사람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진 것만큼 행복한가? 물론 어느 정도 관계는 있었지만 행복은 가진 것에 의해서 추구되지 않습니다. 행복은 결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안에서 찾아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조건에 있으면서도 누군가는 행복을 느끼며 살고 누군가는 불만 속에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너나없이 모두 부자가 되고 싶어함

니다. 그것은 본능적인 소망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계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미국이나 강대국들이 온 세계를 자기네 시장으로 만들겠다는 소리입니다. 더 부자가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경제적 침략입니다.

정당한 노력에 의해서 재산을 모으지 않고 투기 같은 것으로 급작스럽게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갑작스런 부는 인간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자기 그릇에 채울 만큼만 지녀야 하는데, 훨씬 많이 채우려고 하니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지금까지의 삶의 소중한 의미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착실하게 노력하면서 살아온 삶의 질서에 혼란을 가져옵니다. 인간관계의 소중함도 상실되어 버립니다.

세상에 공것은 없습니다. 횡재를 만나면 반드시 횡액을 당합니다. 그것이 인과관계입니다. 물질이란 그런 것입니다. 부는 홀로 오는 법이 없습니다.

어두운 그림자를 동반합니다.

20여 년 전 어느 절에서의 일입니다. 한 스님이 복권에 당첨되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난데없는 행운에 착실하게 기도를 하던 스님은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우선 은사 스님한테 자동차를 한 대 사드렸다고 합니다. 얼마 안 있어 자기도 차를 사고, 그때부터 생각이 달라지더니 결국 동네 처녀와 눈이 맞아 결혼까지 했습니다. 그 후 들리는 이야기로 그는 택시 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난이 미덕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맑은 가난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탐욕을 버리고 분수를 지키자는 것입니다. 지나친 소비와 넘침에서 벗어나 맑고 조촐하게 가질 만큼만 갖자는 뜻입니다.

누가 진정한 부자인가? 가진 것이 많은 적든 덕을 닦으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덕이란 무엇인가? 남에 대한 배

려입니다. 남과 나누어 갖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은 근본적으로 내 소유가 아닙니다. 단지 어떤 인연에 의해서 우주의 선물이 내게 잠시 맡겨졌을 뿐입니다. 바르게 관리할 줄 알면 그 기간이 연장되고, 마구 소비하고 탕진하면 곧 회수당합니다.

뜻밖의 물질이 생기면 조심스럽게 생각하십시오. 정당한 소득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옳게 쓰면 덕을 쌓고 잘못 쓰면 복을 감하게 됩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없습니다. 부유하다고 해서 늘 부유하란 법 없고, 지금 가난하다고 해서 계속 가난하란 법 없습니다. 무상하다는 것은 어떤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의지와 창조적인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축적할 수도 있고, 있던 것을 하루아침에 날려 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 만큼 살다가 세상과 작별

하게 될 때 무엇이 남습니까? 홀로 있는 자키 자신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가지고 가는가? 평소에 지은 업을 가지고 갑니다. 좋은 업이든 나쁜 업이든 평소에 지은 업만 그림자처럼 따라갑니다.

인도 사람들에 따르면 바로 그것이 다음 생을 이룹니다. 무엇이든 갑자기 이루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수많은 시간 동안 차곡차곡 쌓여서 되는 것입니다. 가까운 예로, 스님들 중 이번 생에 처음 출가한 사람은 쉽게 정착하지 못합니다. 2, 30년이나 승가에 몸담았으면서도 택시 운전사로 돌아가는 것을 보십시오. 하지만 몇 생을 이 길에서 닦은 사람들은 죽어도 떠나지 않습니다. 업이란 그런 것입니다.

하루하루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말과 행위를 하는가가 곧 다음의 나를 형성합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스스로가 다음 생의 자신을 만들고 있습니다.

길상사를 일부에서 부자 절이라고 한다니, 과연 그렇게 불릴 만한 절인지, 이곳에서 수행하는 스님들과 신도들 모두 반성해야 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어 가질 때, 청정한 수행과 올바른 가르침으로써 믿고 의지하는 도량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아

름답고 길상스러운 부자 절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부자가 되기보다는 잘 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잘 사십시오. 부자 부럽지 않게 잘 사십시오.

- 2005년 12월 11일 길상사 창건 8주년 법문

길상사 창건 21주년 기념 법회

12월 16일(일) 오전 11시 / 극락전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의 창건 21주년 기념 법회를 12월 16일(일) 극락전에서 사시예불 후 봉행되오니, 맑고 향기롭게 회원님과 길상사 신도님께서는 수회동참하시어 길상사가 맑고 향기로운 도량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회 후에는 참석하신 모든분들께 2019년 기해년 벽걸이 달력을 기념품으로 나누어 드립니다.

불자다운 삶의 태도

글 • 덕 일(德日)

여러분 무척 반갑습니다. 한 달 동안
별고없이 잘 보내셨는지요?

온 국토가 단풍 소식으로 넘쳐나는데 저희 길상사를 둘러싸고 있는 나무들도 형형색색 단풍이 들어 정말 아름답습니다. 저 붉은 단풍들이 불타오르듯 절정인데 비가 내릴 거라는 예보가 들려와 혹시 저 단풍앞에 비가 떨어지면 마당에 붉은 단풍 물이 베어 고이지 않을까 하고 내심 걱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비가 내리고 있는데 다행이 괜찮은 걸 보니 헛된 망상은 털어낸 것 같습니다. 아마도 단풍앞이 더 붉어져야 가능하겠지요. 물론 여담으로 드린 말씀입니다.

익히 들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

난 10월에 스리랑카 해외 성지순례가 있었습니다. 스무 분 남짓한 신도들께서 동참하셨는데 염려해주신 덕분으로 별고없이 원만 회향하고 돌아왔습니다. 인도의 남쪽 인도양에 있는 섬나라인 스리랑카는 1972년에 국명을 실론에서 스리랑카 공화국으로 바꾸고 영국 연방에서 독립한 나라이며, 흔히 불교도들의 성지이자 인도양의 눈물이라 불리는 아름다운 인도양의 거대 섬입니다. 이곳저곳의 성지들을 적잖게 다녀왔지만 역시나 부처님 치아 사리를 모신 불치사(佛齒寺)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스리랑카인은 부처님의 소중한 치아 사리를 인도로부터 목숨을 걸고 가져와 불치사에 모셨다고 합니다. 스리랑카는 16세기부터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으로부터 각각 식민 통치를 받는 동안, 승려 한 명도 남지 않은 대법난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스리랑카인에게 치아 사리는 곧 부처님을 뜻하는 것으로 고난 속에서도 목숨처럼 지켜왔습니다. 말하자면 이곳에 모신 치아 사리는 스리랑카 불교 자체요,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부처님의 법등(法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와 닿는 것은 식민시대의 불교 말살 이야기였는데 우리와 똑같은 역사에 동병상련을 느껴 마음이 아팠습니다. 스리랑카는 외세의 침략으로 불교가 말살되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유교를 이념으로 하는 조선시대의 불교 대탄압과 이후 서양 종교의 유입으로 또다시 그 존재감이 약해져 가는 모양새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스리랑카 역시 500년에 이르는 서양의 침략과 영국으로부터 독립 이후 내전에 의한 불교 유적지 파괴 등을 고려한다면 현재 스리랑

카 불교 유적의 보존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불심(佛心)의 중심이자 영원한 법등(法燈)인 불치사에서 그곳 사람들은 흰옷을 정갈하게 갖추어 입고 경건하고 맑은 모습으로 참배하는데 온갖 꽃들과 공양물을 올리며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그분들의 모습에서 저는 부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출가 수행하는 불제자로서 많은 세월을 부처님 전 앞에서 진실하고 간절하지 못한 가식적인 기도로만 일관한 제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제법 쌀쌀한 바람이 불어오던 10월 초, 가을 새벽에 꽃처럼 귀한 생명 하나가 사그라졌습니다. 요리사를 꿈꾸며 제주 한라 대학교 호텔 조리과에 재학 중이던 김선웅 학생이 새벽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폐지 박스를 주워서 힘겹게 길을 가시던 어느 할머니의 수레가 도로 틈 사이로 빠진 것을 보았습니다. 선웅 학생은 수레바퀴를 빼내어 할머니를 도와 수레

길상사 가람에 대해서 ③

글 • 홍정근

를 밀고 횡단보도를 건너가다가 그들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습니다. 가족들은 그의 마지막을 송고하게 기리고자 장기 조직 기증에 동의하였습니다. 김선웅 학생은 장기 조직 기증으로 7명에게 새 삶을 찾아준 다음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또한 1980~90년대 홍콩 느와르 영화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스타 불자(佛子) 주윤발 배우가 사후 전 재산의 99%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기부하겠다는 의지를 세상에 공표하였습니다. “돈은 내 것이 아니다. 당분간 잠시 보관하고 있을 뿐이다. 내 꿈은 행복하고 평범한 사람이 되는 것. 내 삶에서 중요한 것은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하고 남은 인생을 단순하게 사는 것이다.”라고 소신을 밝혔다고 합니다. 어쩌면 법정 큰스님의 무소유의 삶과 일

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그의 계획이 더 아름다운 것은 그 역시 처절하게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7명에게 장기를 기증하여 값진 새 인생을 선물하고 떠난 고(故) 김선웅 학생이나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주윤발 배우의 의미 있는 삶 또한 기록하고 송고합니다. 하지만 불자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영위하고 살아 가야만 할까요. 당연히 불자다운 삶의 태도를 지니고 간직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나무들의 단풍을 바라보면서 과연 저 불타는 단풍의 색깔처럼 나도 불타는 신심을 갖고 살고 있는가! 스스로 자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다 함께 부처님 되시길 바랍니다.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는 옛 가옥들을 손상하지 않아 문화재적 가치가 높다. 지장전은 대원각이 길상사로 바뀐 뒤 처음으로 건립된 건물로서 지상 2층, 지하 1층, 연건평 460평 규모로, 법당과 도서관, 공양간 등을 갖추었다. 전각 앞쪽에는 돌로 수로를 만들어 수련을 띄우고, 그 앞 잔디에는 둥근 연못을 파서 백련과 홍련이 피어나게 했다.

2005년 5월 8일 지장전 점안 및 낙성법회가 열린던 그 날, 꽃 피는 5월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추웠다. 일요일인데도 어버이날과 지장전 낙성식이 겹친 날이라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법당과 주차장에 많은 사람이 참석하였다. 당시 법정 스님은 “보리

누름에 설늬음이 얼어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따뜻해야 할 계절에 오히려 춥게 느껴지는 때가 있다는 뜻입니다. 보리누름(보리가 누렇게 익는 철)에는 무척 춥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맥추(麥秋)라고도 합니다. 들에 나가면 누룬누룬 보리가 머물어 갑니다. 그 보리를 익히느라 오늘 이렇게 추운 모양입니다.”라며 법문을 시작하였다.

지장보살은 중생의 구원자로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자(死者)의 영혼을 모두 구제한 후에 스스로 부처가 될 것을 서원한 보살이다. 이러한 지장보살의 자비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선망조상부모형제가 육도유회나

- 불기 2562년 음력 10월 초하루 법문(2018년 11월 8일)

지옥에 떨어질 것을 걱정하는 후손들에게 죽은 뒤에 고통을 구제해주는 보살로 신봉되었다. 그리고 관세음보살은 현실의 죄나 고통을 없애 주고 중생을 위험으로부터 구제하는 보살로 일반인에게 가장 친숙하게 널리 숭상되었다.

길상사 마당에 모셔진 관세음보살상은 금동미륵반가상의 이미지와 성모 마리아상의 이미지를 함께 보는 듯한 느낌을 주며, 종교 간 화합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 현대 불교 조각계의 극찬을 받고 있는데, 한국 조각계의 거장 최종태 교수(서울대 명예교수, 현 김종영미술관 명예관장)가 만 들어 세웠다. 그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서 성모상 조각가로 이름이 높고 가톨릭 미술가협회 회장을 맡기도 했다. 그래서 길상사의 관음상 조성 당시 세상에 잔잔한 화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 관세음보살상(觀世音菩薩像)

최종태 교수에게 관세음보살상 제작은 오랜 숙원에 가까웠다. 그의 작품 활동에 가장 큰 영감을 준 것이 한국의 불상들이기 때문이다. 젊은 날 어려웠던 시절에 갈 길을 확실하게 깨우쳐 준 것이 금동미륵반가상으로, 그 미륵상의 본질적인 사상과 형태가 조각 미술의 지표가 되었다고 한다. 또한 그는 1958년 세례를 받기 전에 종로 대각사에서 〈반야심경〉과 〈금강경〉 등 경전 공부를 하였고, 대학 시절 '불경을 기초로 한 나의 예술론'을 논문으로 제출할 정도로, 예술과 종교의 경계가 없이 마음이 폭넓게 열려 있었다.

그런 그가 인생에 한번은 관음상을 새겨보고 싶었으나, 이를 받아주는 사람과 장소가 없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정채봉(1946~2001, 아동문학자, 맑고 향기롭게 초창기 이사 역임) 작가와 사석에서 관음상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열린 가슴을 지닌 법정 스님에게 이야기가 전달되어

두 분이 만나게 되었는데, 당시 최종태 교수와 법정 스님 간의 관음상에 대한 대화는 짧지만 매우 명확했다.

“머리에 쓴 관이 무슨 뜻입니까?”

“자비의 꽃으로 화관(花冠)입니다.”

“그러면 손에 들고 있는 병은 무엇입니까?”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감로수인 정병(淨瓶)입니다.”

“오른손바닥이 바깥으로 보이도록 만드는 까닭은 무슨 의미입니까?”

“구구(救苦)입니다.”

꽃 관에다 정화수에다 세상 고통을 구한다는 세 마디를 듣는 순간 작품이 다 잡혔다고 한다. 다음날 곧바로 흙일을 시작한 최 교수는 세 시간 만에 다 됐다 싶어, 길상사 주지 스님에게 전화를 했는데 뜻밖에도 법정 스님이 받으셨고, 스님은 지금 가보겠다고 하셨다. 이렇게 두 분의 뜻이 맞아 길상사 절 마당에 관음상이 세워졌다.

2000년 4월 28일 관음석상을 세



우면서 법정 스님은 “이 관세음보살상은 길상사의 뜻과 만든 이의 예술혼이 시절 인연을 만나 이 도량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 모습을 보는 이마다 대자대비한 관세음보살의 원력으로 이 세상 온갖 고통과 재난에서 벗어나지이다. 나무관세음보살”의 연기를 새겼다.

또한 그동안 보아왔던 관세음보살상과 달리 가냘픈 여인상과 성모상의 표정이 담겨있어 의아해하는 대중에게 관세음보살과 성모마리아가 상징하는 자비와 사랑이 종교의 차이가 아니라 서양과 동양의 문화의 차이이며, 종교의 진리는 하나임을 특별히 강조하였다.

최종태 교수는 “땅에는 나라도 중

교도 따로따로 있지만 하늘로 가면 경계가 없다.”며 “워낙 소녀상이나 성모상을 많이 만들었으니 닳을 순 있지만 그걸 의식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길상사 관세음보살상은 현대적 조형미를 물씬 갖추고 있다. 부드럽고 긴 곡선의 목선 위로 보이는 관음의 얼굴은 중생의 고통을 안은 삼매의 미소가 깃들여 있고, 정병을 감싸 안은 손이 불상의 중앙에 자리잡아 안정감을 주면서도 단조로움을 잊게 해준다. 아랫부분은 옷의 잔주름을 제거하여 현대적 감각을 최대한 살렸으며, 재질은 화강암이고 높이는 1m 80cm이다. 예술인으로 종교인으로 그리고 학자로 살아온 최종태 교수의 깊은 연륜에 깃들여 자비의 화신으로 자모(慈母)의 이미지를 현대적으로 재현한 관세음보살의 숭고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 범종각(梵鐘閣)

통신이 발달하지 않은 곳에서 소리 신호의 중요성은 매우 높다. 조선 시대 보신각에서 울리는 33번의 종소리에 사대문을 열고, 28번의 종소리로 문을 닫았는데, 이것이 오늘까지도 전해져 매년 새해맞이 행사로 제야의 종을 33번 치고 있다.

사찰에서는 아침저녁의 예불 때 범종(梵鐘)과 법고(法鼓), 목어(木魚)와 운판(雲板)을 치기 때문에 이를 불전 사물(佛殿四物)이라고 하고, 범종을 치는 이유는 지옥의 죄 많은 중생과 천인들까지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한다는 교화의 의미가 있으며, 새벽예불에는 28번, 저녁예불에는 33번을 친다. 그러나 길상사에서는 사찰 주변 주민들이 너무 이른 새벽에 잠에서 깨지 않도록 새벽예불 전에는 범종을 치지 않고 도량석만 하고, 저녁예불 전에만 범종을 치고 있다.

길상사 범종은 기생들이 옷을 갈아입던 팔각정(현재 맑고 향기로운 가계

맞은편)에 개원 당시 길상화 보살의 염원으로 단독 시주하여 모셔졌는데, 성덕 대왕 신종(에밀레종)을 옮겨 놓은 듯한 모습으로 범종에 새겨진 비천상은 연화좌 위에 무릎 꿇은 자세로 손에 향로를 들고 있고, 천의 자락과 보살화가 구름무늬처럼 생동감 있게 표현되어 있다. 그리고 비천상 사이에는 공덕주 길상화보살의 무주상보시에 대한 연기문(緣起文)으로 “아침저녁으로 이 도량과 둘레 은은히 울려 퍼지는 이 종소리는 청신녀 길상화 김영한 님의 간절한 기원의 메아리다. 그는 자신이 지녀온 칠천 평에 가까운 이곳 터와 집들을 보다 값있는 일에 쓰고자 흔연히 삼보 전에 헌정하였다. 부처님 재세 시 기원정사를 세운 급고독장자의 그 발원이 시절 인연을 만나 오늘 이 도량까지 이어진 것이다. 한 청신녀의 착하고 장한 소원으로 빛어진 이 범종 소리를 듣는 이마다 근심걱정에서 벗어나고 지혜와 자비심을 일으켜 모든 이웃들과 함께

즐겁고 편안한 삶을 이루어지이다. 불기 2541년 정축년 봄, 회주 법정, 주지 청학, 한주 현문, 원주 덕조, 시주 김길상화, 화주 김대도행”이란 글이 새겨졌다.

범종각은 2005년 5월 지장전을 신축하면서 그해 10월 현재 위치로 옮겨졌는데, 이후 범종에 금이 가 위험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어, 여러 불자의 공덕으로 범종과 단청을 새로 조성하여 2009년 9월 3일 하안거 해제일에 범종불사 회향식을 하였다. 그리고 2009년 범종 조성 시 연기문을 새기지 않은 아쉬움이 있었는데, 2015년 음각으로나마 다시 새겼다. (다음호 계속)



12월 결연 대상자 - 김미연(가명)

엄마와 함께 살고 싶어요.

김미연 님은 2012년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했습니다. 남편에게 매월 받기로 한 50만 원의 양육비는 지급되지 않았고 홀로 아이들을 키우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엄마와 함께 사는 것이 경제적 풍요보다 아이들에게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냉혹했고 한창 자라나는 아이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한다는 미안함이 커졌습니다. 고심 끝에 봉제공장을 운영하여 경제적으로 풍족한 전 배우자에게 양육권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전 배우자와 새어머니 아래에서 아이들은 잘 적응하며 지내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2016년 새어머니와의 갈등이 심해진 아이들은 엄마와 함께 살기를 원하며 김미연 님에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이 남부럽지 않은 환경에서 자라길 바라며

내린 결정이 아이들에게 큰 불안감과 고통을 주었다는 생각에 자꾸만 눈물이 고입니다.

아이들이 엄마의 품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이들을 다시 양육하게 되었지만 4년 전에 겪었던 경제적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미연 님의 소득은 봉제공장에서 받는 월급 120만 원이 전부입니다. 작년 겨울 낙상사고로 왼쪽 손목이 골절되었지만 치료 시기를 놓쳐 결국 제대로 주먹을 쥘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불편한 손으로 일을 많이 할 수 없어 봉제 공장에서 얻는 소득은 점점 줄어만 갑니다. 월세 30만 원, 공과금 20만 원, 교통비 20만 원, 통신비 20만 원을 고정적으로 지출하면 한창 자라는 아이들을 위해 사용할 생계비는 30만 원 남

짓입니다. 부족한 생계비에 월세가 계속 밀려 결국 500만 원이었던 보증금이 200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힘든 것은 아이들이 고생하는 것입니다.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인 큰딸은 신우신염을 진단받았지만 큰 비용에 심적 부담을 느껴 통증을 참으며 꿇잡다고만 합니다. 엄마도 손목 골절인 상태에서 치료를 못 하고 있는데 자신만 치료를 받을 수 없다며 치료를 거부한 상태입니다. 둘째는 올해 중학교 3학년으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불만족스러운 의식주에 또래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수업시간에 커터 칼로 손목을 긋는 행동을 수차례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울증 진단을 받아 정신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보고자 주민 센터에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

한 결과 한부모 가정으로 등록하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부모 가정 신청을 했지만 자격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전 배우자도 이혼 후 운영하던 봉제공장이 부도가 나 생계가 어려워지면서 아이들을 포함하여 4인 가구 긴급생계비 등의 복지혜택을 받기 위해 아이들의 주소를 이전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주민센터의 도움을 받아 김미연 님이 아이들을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양육권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김미연 님 가정에 매월 생계비 40만 원(월세 30만 원, 식비 10만 원)씩 1년간 총 480만 원을 지원하여 아이들이 엄마의 품에서 마음 편히 자랄 수 있도록 도움을 보태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아름다운 마무리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13-787953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
- 아름다운 마무리 모금 캠페인은 소식지 소개와 더불어 인터넷 다음 카카오톡 같이가치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태영 변호사

글 • 곽영미

어느 날 아침, 신문 기사 하나가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태영! 서른여섯 살의 주부로, 세 아이의 엄마로 우리나라 역사 이래 처음으로 당당히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

1952년 당시에는 여성이 법학 공부를 한다는 것도, 고등고시 사법 시험에 합격했다는 것도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사법고시에 여성들의 합격률이 높지만, 그때는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 일이었지요.

‘여자는 나 혼자야. 그러니 반드시 훌륭한 판사가 되어야 해. 그래야 여자를 대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조금

씩 바뀔 테니까.’

하지만 이태영 변호사의 꿈은 산산이 부서졌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여자는 판사가 될 수 없게 했거든요. 대통령까지 그런 생각을 했으니 다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태영 변호사는 굴하지 않고 자기 집에 사무실을 열고 변호사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첫 여성 변호사로서 여자들을 위해 살 것을 다짐했지요. 이태영 변호사가 사무실을 열었다는 소식이 전국 각지에 있는 여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해 쫓겨났어요.”

“남편에게 매 맞고 도망치는 길입니다.”

“여자로 태어났으니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지만, 지옥 같은 시집살이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여자들은 이태영 변호사에게 하소연을 끊임없이 늘어놓았습니다. 그들은 이태영 변호사에게 자신들의 처지를 바꿔 달라고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 요구조차 할 수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들은 그저 누군가에게 하소연을 하고 싶었던 것이랍니다. 이태영 변호사는 또 한 번 다짐했습니다.

“내가 저 여자들을 돌봐야 해. 억연히 법이 있는 데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조차 모르다니. 설사 알고 있어도 저들은 돈이 없으니 내가 도와야 해.”

힘없는 여성들은 가진 돈이 없어서 비싼 법률 상담을 받을 형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뭔가를 요구하고 싶어도 주저하기만 했지요.

이태영 변호사는 여성 법률 사무소를 만들어 힘없는 여자들을 위해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시장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을 찾아다니며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 주었어요. 이태영 변호사가 만든 여성 법률 상담소는 오늘날 ‘한국 가정 법률 상담소’로 이름이 바뀌어 지금까지 그 뜻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성과 남성 차별이 많이 사라졌지만, 불과 50년 전만 해도 여성은 남성보다 낮은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그런 대접을 받다 보니 여성들은 스스로를 작고 못한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왜 여성들이 그런 차별과 멸시를 받게 되었을까요?

우리나라에는 가족법(가족 및 친족의 공동생활과 재산에 관련된 법)이 있습니다. 옛날의 가족법에 따르면, 여성은 집안의 주인이 될 수 없고, 이혼을 해도 재산을 한 푼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이 낳은 아이들을 키우고 싶어도 키울

권리가 없는 등 여자들에게 불리한 항목들이 많았지요.

‘이 법이 있는 한 차별은 계속될 것이 분명해. 반드시 이 법을 없애고 말 거야.’

이태영 변호사는 가족법을 바꾸자고 당당히 말했어요. 곧바로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무시무시한 협박과 반대가 뒤따랐지요. 하지만 그녀는 뜻을 꺾지 않았어요. 여성 단체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한 끝에 남녀 차별과 호주제가 폐지되었고, 1989년에 드디어 새로운 가족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제 여자들도 남자들과 평등한 권리를 갖게 된 것이지요.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많은 차별이 존재한답니다. 장애를 가진 약자를 무시하는 장애우 차별, 다른 민

족을 배척하는 인종 차별, 고학력을 중시하는 학력 차별, 직업의 귀천을 따지는 직업 차별 등이 있습니다.

차별은 사람들에게 사람과 세상을 보는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더구나 차별을 없애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이태영 변호사처럼 자신을 희생하며 앞장서야 해요.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작은 습관 하나도 고치기 어려운 것처럼,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과 희생이 필요하답니다.

이태영 • 우리나라에서 사법고시에 합격한 최초의 여성 변호사. 여성들에게 무료 변호를 해 주고 가난한 동네를 찾아다니며 무료 상담 활동을 했다. 또한 여성 법률 상담소를 만들어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남녀 차별과 호주제 폐지 운동을 벌여 새로운 가족법 제정에 힘썼다.

먼저 생각하라, 그런 다음 말하라

글 • 고현희(공감대화 개발원장)

법정 스님의 수상집 ‘텅 빈 층만에’ 입 다물고 귀를 기울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글에 자신의 영혼을 말하기 위해 매주 월요일을 침묵의 날로 지켰던 마하트마 간디가 나오고, 간디의 말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먼저 생각하라, 그런 다음에 말하라

‘이제 그만’이라는 말을 듣기 전에 그쳐라

**사람이 짐승보다 높은 것은 말하는 능력을 지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능력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서슴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은 짐승만도 못하다**

자신이 평소에 하던 말을 공감대화로 바꾸고자 하는 사람에게 공감대화의 방법인 ‘상느바부(상황 느낌 바람 부탁)’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우선 평소의 말을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간디의 말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상느바부는 할 말을 생각해서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간단한 공식입니다. 외국어를 배울 때 공식을 외우고, 공식에 맞추어 문장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쓰는 대부분의 말은 판단하는 말들입니다. 판단은 사전에 ‘어떤 사물의 진위, 선악, 미추 등을 생각하여 평가름하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진도 없고, 위도 없고,

선도 없고, 악도 없고, 미도 없고, 추도 없다고 합니다. 판단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구 위의 모든 것은 다르고, 그 다름 그대로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방법 중 하나가 말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말한다는 것은 판단하지 않고, 나의 느낌과 상대의 느낌을 솔직히 나누는 것입니다. 서로 바라는 것을 말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감대화입니다. 공감대화로 말하게 되면 서로 의견이 달라도 다투거나 외면하지 않게 됩니다.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삶이 풍요롭게 됩니다.

2006년 '비폭력대화'라는 책이 한국에서 번역되어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을 친구로부터 선물 받고 읽기 시작하면서 제 삶은 바뀌었습니다. 살아오면서 '역지사지'하라는 말을 여러 번 들었지만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역지사지인지 정확히 알지 못

했습니다. 자신보다 상대를 먼저 생각하고, 상대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라고 이해하였지만 그래서 어떻게 행동하고, 말해야 하는지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비폭력대화'에는 역지사지하기 위하여 말하는 방법 (상.느.바.부(상황-느낌-바람-부탁))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단어는 사용하여야 하고, 어떤 단어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의 입장에서 상황을 말할 때는 본 대로, 들은 대로 하고, 느낌은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고 세밀하게 표현하여야 하며,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찾은 후 그 것이 충족되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인식하도록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하는 것이 있다면 질문형의 부탁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같은 방법으로 상대의 입장을 헤아려서 물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놀라움으로 책을 읽었습니다. 동양의 가르침은 큰 테두리를 말해주는

것이라면, 서양의 가르침은 세부 사항까지 설명해주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책을 읽은 후 공감대화 방법을 생활에 적용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쉽지 않았습니다. 문장을 만들면서 혼란스러울 때가 있었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찾기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기존의 말이 불쑥 불쑥 튀어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책을 옆에 두고 연습하였으나 절망감만 커지고 있을 때 '비폭력 대화' 강의를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강의를 들으며 이미 습이 되어버린 폭력 대화를 비폭력 대화로 바꾸는 것이 무척 어렵다는 것을 체감하였습니다. 12회 강의를 모두 듣고, 연습 모임을 계속하였습니다. 몇십 년간 사용한 말을 바꾸기 위해서는 적어도 1년의 노력과 꾸준히 실천하려는 다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00일이 지나면서 서서히 변화하

는 삶을 만났습니다. 제가 먼저 행복하게 변화하였고, 가까운 관계의 사람들도 같이 행복하게 변화하였습니다. 몇몇 사람들에게는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감대화를 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간디의 말처럼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 되지 않으려면 말하는 능력을 부당하게 행사하지 않고 말답게 해야 합니다. 공감대화를 활용한다면 말다운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삶이 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도 더불어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제 삶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마무리를 해야 할 시기입니다. 먼저 생각하고, 그런 다음에 공감대화를 하시면서 마무리를 기쁘게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단념

글 • 김기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별 게 아니었다. 끝없이 단념해가는 것. 그것뿐인 것 같다. 산 너머 저 산 너머는 행복이 있다 한다. 언제고 그 산을 넘어 넓은 들로 나가 본다는 것이 산골 젊은이들의 꿈이었다. 그러나 이윽고 산 너머 생각도 잊어버리고 '아르네'(Arne, 노르웨이의 작가 비에른손이 쓴 소설〈아르네〉(1858)의 주인공. 사생아로 태어났으나 감성적이었던 곳을 동경하는 젊은이. 김기림은 아르네를 통해 순진한 젊은이의 운명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다.)는 결혼을 한다. 머지않아서 아르네는 사오남매의 복福 가진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세상의 수많은 아르네들은 그만 나폴레옹을 단념하고 셰익스피어를 단념하고 토마스 아퀴나스를 단념하고 렘브란트를 단념하고 자못 풍정낭식風定浪息(바람이 자고 파도가 잔잔해진다)는 뜻으로 들떠서 어수선하던 것이 가라앉음을 의미한 생애를 이웃 농부들의 질소質素한 관장觀葬(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치르는 장례)속에 마치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아주 단념해 버리는 것은 용기를 요하는 일이다. 가계를 버리고 처자를 버리고 지위를 버리고 드디어 온갖 욕망의 불덩이인 육체를 뚫을 고행으로써 별하는 수행승의 생애는 바로 그런 것이다.

그것은 무無에 접接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는 아주 반대로 끝없이 새로운 것을 욕망하고 추구하고 돌진하고 대립하고 깨뜨리고 불타다가 생명의 마지막 불꽃마저 꺼진 뒤에야 끊어지는 생활 태도가 있다. 돈후안이 그랬고 베토벤이 그랬고 〈장크리스토프〉의 주인공이 그랬고 랭보가 그랬고 로렌츠가 그랬고 고갱이 그랬다. 이 두 길은 한 가지로 영웅의 길이다. 다만 그 하나는 영구적 적멸寂滅로 가고 하나는 그 부단한 건설로 향한다. 이 두 나무의 과실로 한편에 인도의 오늘이 있고 다른 한편에 서양의 문명이 있다.

이러한 두 가지 극단 사이에 있는 가장 참한 조행操行(태도와 행실을 아울러 이르는 말) 갑甲에 속하는 태도가 있다. 그저 얼마간 욕망하다가 얼마간 단념하고…… 아주 단념도 못하고 아주 쫓아가지도 않고 그러는

사이에 분에 맞는 정도의 지위와 명예와 부동산과 자녀를 거느리고 영양榮養도 갑을 보전하고 때로는 표창表彰도 되고 해서 한 편篇 아담한 통속 소설 주인공의 표본이 된다. 말하자면 속인 처세의 극치다.

이십 대에는 성盛히 욕망하고 추구하다가도 삼십 대만 잡아서면 사람들은 더욱 성하게 단념해야 하나 보다. 학문을 단념하고 연애를 단념하고 새로운 것을 단념하고 발명을 단념하고 드디어는 착한 사람이고자 하던 일까지 단념해야 한다. 삼십이 넘어 가지고도 시인이라는 것은 망나니라는 말과 같다고 한 누구의 말은 어찌면 그렇게도 찬란한 명구나.

약간은 단념하고 약간은 욕망하고 하는 것이 제일 안전한 일인지도 모른다. 아름다운 단념은 또한 처량한 단념이기도 하다. 그러나 예술에 있어서도 학문에 있어서도 나는 나 자

신과 친한 벗에게는 이 고상한 섭생
 법을 권하고 싶지 않다
 ‘일체一切냐 그렇지 않으면
 무無냐?’
 예술도 학문도 늘 이 두 단에斷
 崖의 절정을 가는 것 같다. 평온을

바라는 시민을 마땅히 기어 내려가
 서 저 골짜기 밑바닥의 탄탄대로를
 감이 좋을 것이다.

〈문장〉, 1948년 12월

* 출처: 모단 에세이/방민호 역

마사이 사람들

글 • 강인철

김기림(1908~?) 시인, 문학평론가 • 본명은 김인손(金寅孫)이고 필명은 편석촌(片石村). 함경북도 학성군 학중 출생으로 서울 보성고등보통학교를 거쳐 도호쿠제국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했다. 구인회(九人會)의 구성원으로 1930년대 초·중반 조선의 모더니즘 시운동을 주도하였으며 이후 〈모더니즘의 역사적 위치〉(동양에 관한 단장) 등의 평론을 통해 문명사적인 시각에서 조선 사회와 그 문학 문제의 요점을 갈파하는 식견을 보여주었다. 시집으로 〈기상도〉(태양의 풍속)〈바다와 내비〉, 수필집으로 〈바다와 육체〉 등을 포함한 다수의 저서를 남겼다.

중앙모임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 (사)맑고 향기롭게 중앙모임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기부금 영수증은 2019년 1월 중순 이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hometax.go.kr)'와 본모임 홈페이지(http://www.clean94.or.kr)에서 후원내역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서비스(인터넷)로 발급받기 어려운 분께서는 사무국으로 신청하시면 우편으로 발송해드립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후원자의 개인정보가 본 모임에 등록된 내역과 일치해야 합니다.

마운틴 킬리만자로는 생각보다 멀
 었다. 나이로비에서 남으로 반나절,
 나망가 국경 공동 경비 구역에서 입
 출국 절차에 2시간 그리고 탄자니아
 를 한참 달린 후에야 그 산을 보았
 다. 구름인지 만년설인지 모를 하얗
 고 두루뭉술한 덩어리가 적도의 하
 늘 위에 떠 있었다. 문을 열어 놓고
 달리는 차창으로 열기와 먼지가 다
 투어 들어왔다. 갑자기 차가 섰다. 소
 떤 이동 중이었다. 빨간 슈가(망포)
 를 두르고 긴 막대(창)를 든 마사이
 남자들도 거기 함께 있었다.

해발 2,400m 웅고롱고로는 그나
 마 시원했다. 해가 설핏하자 나뭇의
 그들 음악이 흐르고 민속무용에 동
 참도 해 보았으나 흥에 취하기에 앞
 서 그들 특유의 체취를 감당하기에
 긴 시간을 인내할 순 없었다. 마침
 내일 마사이 마을 견학 프로그가 있
 하여 선착순으로 이름을 올리고 일
 짝 잠자리에 들었다.

기린은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으
 나 톱슨가젤은 멀리서 무리 지어 놀
 고 있었다. 아카시아 바오밥나무가
 드물게 지나가면서 긴꼬리원숭이가
 멀뚱거리며 쳐다본다. 동글동글하고
 고만고만한 그들의 가옥(?)이 보이기
 시작했다. 흙먼지 자욱한 속에 차가
 마을에 가까워지자 여기저기서 남녘
 노소 마사이들이 모여들더니 똥똥
 똥 북을 치기 시작한다. 그 속으로
 조심조심 들어갔다.

갑자기 “우아~ 알랄라~ 아이에~

알라~” 소리 지르며 발을 구르고 펄쩍펄쩍 뛰기 시작한다. 큰소리에 높이 뿔수룩 대환영이란다. 정신 차릴 겨를도 없이 이번엔 손으로 입술을 두드리며 “아헤~아~바~바~바”를 외치며 창과 방패를 들고 싸움인지 무예인지 난리를 피운다. 하늘, 땅, 바람, 물과 모든 생명체에 감사하며 손님이 와 기쁘다는 의식이라는데 웬지 조금 무서웠다.

맨땅에 얼기설기 나뭇가지를 엮고 누우(소) 똥으로 바람을 막은 한 평 정도의 움막들이 둥글게 모여 있음은 외침을 막기 위함이라는데 글썽 그 정도로 무얼 어떻게 막아낼지 걱정스럽다. 하늘만 가린 어린이 교실에선 열댓 명이 A, B, C, D를 외우고 있었다.

남자가 여러 날 사냥을 나가면 아내를 친구한테 돌봐 달라 한다는데 무얼 어쩌자는 건지 알쏭달쏭하다. 와 보면 무얼 좀 알까 싶었으나 오히려 궁금증만 더 커지고 말았다. 한

번 더 와 봐야겠다.

동물의 왕국

만야라 뜻지는 그래도 깨끗했다. 이들 특유의 원색적인 그림들이 거리에서 사람을 불러 모으기도 하고 끼리끼리 모여 음악을 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들의 재즈풍이 우리의 자진모리장단과 매우 흡사한 건 재미있는 현상이었다. TV에서 본 동물의 왕국은 신나고 멋있고 낭만까지 흘렀었다. 그래서 누구나 선망하여 아프리카 여행을 꿈꾼다고들 한다. 아르샤를 지나 사파리를 위해 종일 달려가야 하는 차가 어찌나 요동을 치던지 오장육부가 얼떨떨하다. 미리 구토, 설사, 멀미약 등을 단단히 챙겨야 할 일이다.

7~10월이 되면 세렝게티는 건기(乾期)라 풀이 마르므로 초식동물들은 먹이가 부족해진다. 같은 시기 암보셀리는 우기(雨期)가 시작되고 물 냄새 따라 얼룩말, 누우, 톰슨가젤 등



이 대이동을 시작한다. TV에서처럼 강을 건너야 하는데 그곳엔 악어, 하이어나, 사자 등 육식동물들이 때맞춰 입맛을 다시며 기다리고 있다. 먹고 먹히는 이 한마당을 삶과 죽음의 대서사시라 절로 짓고는 현지 가이드가 장황한 설명을 마친다. “이제 그런 곳으로 가려나 보다”하고 목매어 기대했던 말이 그렇다는 것이지 일 반 여행자는 갈 수 없는 허가 지역이라며 얼버무리고 만다. “아니~ 이럴 수가...?” 그런데 그런 곳이었다.

다음 날 기대하던 사파리에 나섰다. 맹수들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덤 지만 전투복 차림을 하고 망원경도

챙겼다. 지붕에 두껍이 있는 6인용 랜드로비에 올라 사방의 초원을 응시하기에 바빴다. 기린과 코끼리가 지나가더니 뒤이어 까만 점들이 보였다. 물소 떼란다. 얼룩말 무리는 여기저기 많았다. 꽃사슴처럼 예뻐던 톰슨가젤은 참 귀여웠는데 차가 가까이 서는데도 멈추질 않는다. 야생이라 전염병 위험 요소도 많거니와 지정된 휴식 공간이 아니면 큰일 난단다.

일사병이라도 걸릴 것만 같은 태양열인데 그늘 하나 제대로 된 곳이 없는 망망한 대초원에서의 하루, 해 질 녘에야 사자 세 마리를 보았다. 영화에서처럼 멋지게 포효하는 모습이 아니라 두 마리는 잠자고 한 마리는 그냥 앉아 있었다. 표범, 하마, 코뿔소, 악어, 하이어나 등을 만날 수 있는 건 내일일까, 꿈에서일까. 아니다, 너무 순진한 기대치가 죄였나 보다.

강인철 • 충남 금산에서 태어나 『에세이2』 가을호로 등단했고, 현재 문화유산국민신탁 홍보대사, 서울 시교육청 재능기부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부자 라이브 인 USA』 『이름이 뭐래』 등이 있다.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클 • 나딘 스테어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이번에는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르리라.
긴장을 풀고 몸을 부드럽게 하리라.
그리고 좀 더 바보가 되리라.
되도록 모든 일을 심각하게 생각지 않으며
보다 많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리라.

더 자주 여행을 다니고
더 자주 노을을 보리라.
산도 가고 강에서 수영도 즐기리라.
아이스크림도 많이 먹고 콩 요리는 덜 먹으리라.
실제 고통은 많이 겪어도
고통을 상상하지는 않으리라.

보라, 나는 매 순간을,
매일을 좀 더 뜻깊고 사려 깊게 사는 사람이 되리라.
아, 나는 이미 많은 순간들을 마주했으나

인생을 다시 시작한다면 그런 순간들을 많이 가지리라.
그리고 순간을 살되
쓸데없이 시간을 보내지 않으리라.
먼 나날만 바라보는 대신
이 순간을 즐기며 살아가리라.

지금까지 난 체온계와 보온병, 비옷, 우산 없이는
어디에도 못 가는 사람이었다.
이제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보다 간소한 차림으로 여행길을 나서리라.

내가 인생을 다시 시작한다면
이른 봄부터 늦가을까지
신발을 벗어 던지고 맨발로 지내리라.
춤도 자주 추리라.
회전목마도 자주 타리라.
데이지 꽃도 더 많이 보리라.

나딘 스테어 • 나딘 스테어는 그다지 알려진 바가 없다. 미국 켄터키 주에 살고 있다는 것. 그녀가 85세가 되던 해에 시를 썼다는 것이 전부이다. 그녀의 존재는 1993년 미국에서 출간되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에 소개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경동시장의 겨울 풍경

글 • 권오분

한겨울인데 어제는 진중일 비가 내렸다. 낮에는 조금씩 내리더니 저녁나절부터는 주룩주룩 쏟아지는 기세가 여름날 비 같다. 우산을 쓰고 홍릉 뒷산에 갔다. 작은 동산 안에는 여러 가지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뜸할 새가 없다. 복작대는 게 싫어서 자주 가지 않았는데 어찌면 올겨울 마지막 비밀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나를 공원으로 이끌었다. 사람이라고 한 명도 없는 공원에 비를 맞는 나무들이 시원해 하며 서 있을 뿐이었다. 몇 차례나 공원을 오르내리며 바지가 흠뻑 젖었는데도 즐겁기만 했다.

밤까지도 비가 멈추질 않더니 새

벽넛에야 그쳤다. 비 내린 다음 날 아침의 상쾌함과 쾌적함은 겨울이 나 여름이나 다를 바가 없는 듯하다. 몸의 상태가 좋지는 않았지만 비에 씻긴 깨끗한 길과 맑은 공기가 아까워서 용기를 내어 시장에 나갔다.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처럼 배낭을 메고 경동시장에 다녔는데, 요사이 출지도 않은 겨울을 맞으면서도 감기에 천식까지 앓아 며칠을 누워 있다 보니 여러 날 시장에 가지 못했다. 아이들의 등교 시간으로도 어른들의 출근 시간으로도 이른 편이라 길은 한갓지고 사람의 기척이 뜸한 이 시간, 시장으로 가는 길은 여유로운 속삭임들로 가득했다.

여러 날 보이지 않아 궁금했노라

고 한마디씩 말을 건네는 사람들의 따스하고 인정 어린 눈길이 내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 아침마다 시장으로 나를 이끄는 힘이 바로 이것 이리라. 사람에 대한 관심과 자연에 대한 관심이 어우러져 있는 곳. 그 어우러짐이 만들어내는 에너지가 나를 시장으로 오게 한다.

작년 겨울에는 시장 골목에 드럼통을 잘라 만든 커다란 난로로 채소가 얼지 않게 하느라 법석이었는데 올해는 겨울이 따뜻해서 좋겠다고 웃으며 말했더니, 경기가 좋지 않아 명절에 앞에 두고도 장사가 되질 않는다고 울상이다. 경동시장은 재래 시장인 데다가 서민들이 많이 애용하는 곳이라서 장사가 안된다니 상인의 걱정으로만 그칠 일은 아니란 생각에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위로를 한답시고 이것저것 사서 배낭을 가득 채웠다.

겨울이 따뜻해서인지 소비가 늘지 않아서인지 버섯도 상추도 풋고추도 당근도 제철보다 값이 더 싼다. 싸서 좋아야 할 텐데 오히려 걱정되었다. 모두들 식당에 손님이 없어서 재료를 사 가질 않으니 매상이 오르지 않는 것은 물론, 그나마 좀 팔린다 싶은 물건들은 대부분이 중국산이라며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한다. 생산비가 많이 드는 우리 농산물은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고 가격이 비싸니 팔리지 않을 수밖에 없고.. 악순환의 고리를 어찌해야 좋을지 사람들 얼굴마다 수심 가득한 눈으로 이야기를 한다.

맑은 날씨가 가까워서 내친걸음이 머릿속에 먹구름을 끼게 하고 말았다. 그래도 앞으로는 기쁜 일들이 많이 생길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좋은 인사말들은 아끼지 않았다.

그래, 희망을 품자. 돈보다 더 소중한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기



회로 삼자. 그들을 위로하느라 이런 다. 물질이 좀 궁한들 맑고 향기롭게
저런 소리를 하다 보니 나 자신이 위 살아가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로를 받고 있었다. 머릿속 잿빛 구름 욕심은 줄이고 사랑은 늘리고, 이것
은 어느새 한 줄기 햇살을 품고 있었 이 우리가 사는 방법이라.

권오분 • 동네에서 밥 퍼주는 아줌마로 소문난 권오분님은 과거 『맑고 향기롭게』 소식지에 오랫동안 글을 연재했으며,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글들을 주로 쓰셨다. <제비꽃 편지> <오로여는 세상> <아름다운 우리 숲 찾아가기(공저) 등>이 있다.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 후원

'길이 열리는 만큼 물이 흐르듯 본 모임의 사업은 회원님께서 후원해 주시는 만큼 펼쳐집니다. 맑고 향기롭게 모임은 100% 회원님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후원계좌 기부 : 국민은행 817-01-0253-129 (사)맑고 향기롭게

※ (사)맑고 향기롭게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활동소식을 비롯하여 법정 스님의 글과 삶의 지혜가 담긴 일차고 유익한 월간'맑고 향기롭게'를 정기적으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맑고 향기롭게 소식과 법정 스님 글을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APP)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 회원 가입은 홈페이지(www.clean94.or.kr)나 사무국으로 방문하셔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 후원해 주신 모든 기부자께는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중앙모임 소식(02-741-4696)

2018년 중앙모임에서 1년간 활동하였던 내역을 간략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2018년에는 길상사 내에서 맑고 향기롭게 운동을 확산하고, 중앙모임과 지역모임 간의 교류와 협력으로 본회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법정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여러 회원님과 봉사자 그리고 사무국 활동가들이 뜻을 모아 욕심내지 않고, 나누고 양보하면서 우리 마음과 세상,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는 일을 조용하지만 지속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새해에도 청정한 마음을 가지기를 노력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면서, 자연을 가꾸면서 실천하는 모임이 되도록 뜻을 함께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음 사업

① 월간 '맑고 향기롭게' 발행

- 2018년 12월 통권 286호 발행 / 월평균 10,500부 발간
- 맑고 향기롭게 회원, 길상사 신도 외 교도소, 군 법당, 병원, 복지시설에 무료 배포하고 있으며, 소식지 발송 정기 봉사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② 연꽃 스티커 배포

- 맑고 향기롭게 연꽃 스티커를 전국 사무국과 길상사 진영각에서 배포하고 있으며, 각종 행사 및 홍보 활동을 통하여 배포하였습니다. (한글판, 영문판 제작 / 2018년 15,000부 배포)

③ 맑고 향기롭게 강연회 - 인권에 대해서

3월부터 11월까지 매월 4, 5째 일요일을 활용하여 '인권'을 주제로 서울시 인권강사를 초청하여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1회 - 3월 25일/양정훈(인권 일반)
- 2회 - 4월 22일/양정훈(인권 일반 2)
- 3회 - 4월 29일/조혜욱(아동&청소년 인권 1)
- 4회 - 5월 27일/조혜욱(아동&청소년 인권 2)
- 5회 - 6월 24일/서미화(자원 활동과 인권)
- 6회 - 7월 22일/고현희(장애 인권)



- 7회 - 8월 26일/유일영(여성 인권, 성 평등)
- 8회 - 10월 28일/송재영(인권과 평화)
- 9회 - 11월 25일/모천석(가정 인권)

④ 법정 스님을 그리는 맑고 향기로운 음악회 개최

• 우리 시대 큰 스승이셨던 법정 스님 입적 8주기를 맞아 스님의 무소유 정신과 가르침을 기리는 맑고 향기로운 음악회 살아있는 것은 다 행복하랴를 3월 11(일) 오후 1시 길상사 설법전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어린이 노래 그룹 '작은 평화의 발랄한 무대로 봄의 기운을 고조시키고, 스님의 저서 '살아 있는 것은 다 행복하랴' 중에서 가려 뽑아 연출한 꽃뜰 힐링 시 낭송회의 시극으로 1부가 진행되었고, 2부에는 국악가수 권미희, 포크가수 박창근이 맑고 향기로운 노랫말과 더불어 법정 스님의 글을 노래로 편곡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법정 스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오롯이 담은 음악회에 300여 명의 대중이 참석하여 의미 있고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⑤ 법정 스님 8주기 추모 법회

• 3월 13(일) 오후 11시 26일) 법정 스님 입적 8주기를 맞아 평소 청빈의 가르침에 따라 설법전에서 추모 법회를 길상사 주관으로 봉행하였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마음에 따르지 말고, 마음의 주인이 되어라'를 선물로 증정하였습니다.

⑥ 무소유 문예 공모전 개최

•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정서 함양과 문예 창작 능력을 고취하고 법정 스님의 아름다운 글과 맑고 향기로운 정신을 널리 공유하는 장이 되길 바라는 취지로, 5월 5일 어린이날에 제2회 무소유 어린이 글짓기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총 105명이 접수하였고, 당일 총 84명의 어린이가 참여하여, 저학년 산문·운문, 고학년 산문·운문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시상식은 5월 27일 진행하여 4명의 수상자에게 무소유상(장원), 맑음상, 향기상, 장려상을 시상하였고, 우수작은 6월, 7월호에 게재하였습니다.

⑦ 맑고 향기롭게 심볼, 캐릭터를 활용한 문화상품 판매

• '맑고 향기롭게'와 '길상사' 브랜드 포교 활성화, 문화상품 시범 개발 및 의류리폼, 천연화장품 사용 증대를 위해 길상사 내 '맑고 향기로운 가게'와 '녹색 나눔 장터'에서 관련 상품을 판매하여 수익금을 사회에 재환원하고 있습니다.

⑧ 맑고 향기롭게 이사회&대의원총회

• 2월 10일 이사회(54차)를 개최하여 중앙과 지부 운영회칙을 정관에 준하여 재정비하고, 2월 28일

대의원 총회(33차)를 개최하여 중앙과 각 지부의 2017년 사업 결과, 결산, 2018년 사업 계획, 예산 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⑨ 모바일 앱(APP), SNS 홍보

• 스마트폰 사용자 증대에 따라 맑고 향기롭게 모바일 앱(APP)과 페이스북, 카카오톡 SNS를 활용하여 법정 스님의 법문 영상과 스님의 글, 맑고 향기롭게의 활동 내역을 지속적으로 올리면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⑩ 소모임별 간담회 진행

•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여러 봉사활동 모임인 반찬 나눔 봉사팀, 서울노인복지센터 봉사팀, 진인요양원 봉사팀, 의류 리폼 봉사팀, 소식지 발송 봉사팀, 청소년 봉사자들과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⑪ 법정 스님 진영각 관리

• 법정 스님 진영각을 관리하고, 맑고 향기롭게 간행물과 연꽃 스티커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⑫ 문화행사 및 홍보 활동

• 부처님오신날에 친환경 체험마당, 맑고 향기롭게 홍보부스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진행하여 시민들과 소통하였습니다.

⑬ 중앙-지부 상근 활동가 워크숍 진행

• 중앙모임과 대구, 광주 지부 사무국에 근무하는 실무자 간의 워크숍을 9월 초에 진행하여, 화합과 소속감을 다지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맑고 향기롭게'라는 단체에 몸담고 있는 실무자들이 모여 활동하면서 어려운 점과 사업 방향에 대해 이야기 하고, 법정 스님께서 맑고 향기롭게를 창립하신 취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세 상 사 업

① 맑고 향기롭게 · 길상화 장학사업

- 학생의 가정형편, 성적, 성품 등을 검토하여 총 32명(3명은 중복 지원으로 제외)의 장학생 선정하여 연간 수업료와 학교 운영회비를 분기마다 전액 지원하였습니다.
- 4월 13(일) 길상사 다라니 다원에서 스님과의 대화를 하는 토크콘서트 방식으로 장학증서 전달식 진행하였습니다.
- 1994년 ~ 2018년 장학사업 : 총 674명의 중·고등학생 / 총 지급액 : 약 10억 원(1994년 ~ 2005년



까지 총 249명의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 2006년 ~ 2018년까지 427명의 고등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② 대학생 봉사활동 지원 사업 '나누는 기쁨' 진행

- 대학생들의 재능과 전공을 살려 우리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실천하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개발하고, 선행을 통해 지혜와 자비를 체감할 수 있도록 대학생 봉사 지원 사업 제2회 '나누는 기쁨'을 공모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이화여대·연세대 연합 봉사 동아리 '나누미'가 기획한 '나눔 공부방', 소망 탁아방 아동들의 인성개발 프로그램과 경희대 봉사 동아리 '미리클'이 기획한 '동대문구 저소득 노인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올해 두 번째로 진행된 대학생 지원 사업이었지만 많은 참여가 없어 아쉬웠습니다.

③ 복지시설 정기 방문 자원 활동

- 서울노인복지센터
 - 매주 월요일 종로구 안국동에 있는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2000여 명의 어르신을 위한 점심 무료급식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진인 노인요양원
 - 매월 둘째 토요일 경기도 파주에 있는 진인노인요양원을 방문하여 오전에는 청소 및 주방 봉사, 오후에는 어르신 놀이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젊은 층의 봉사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 월곡청소년센터
 - 청소년 이용시설로 방과 후 교실 운영을 위한 물품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④ 정기 방문 복지시설 '나눔 행사' 개최

- 서울노인복지센터
 - 10월 19(월) 세계 노인의날에 맞춰 어르신 식사 대접 및 후식으로 빵과 두유를 나눔 공양하였습니다.
- 진인 노인요양원
 - 5월 12일(일)에 시설 어르신들을 위한 효 잔치를 준비하여 사물놀이 공연과 더불어 맑고 향기롭게 손수건과 부채를 증정하였습니다.

⑤ 맑고 향기롭게 반찬 나눔

- 매주 목, 금 독거노인, 결식아동, 장애인 및 저소득층 가구 지원
- 현재 484가구 및 단체 1곳 지원
- 반기별 농협 상품권 가구당 3만 원권 지급
- 연 3회 명절(설날, 정월대보름, 추석), 부처님 오신 날 특별 후원

- 3월~11월 둘째 목요일 김치 전달

⑥ 연말 김장 나눔

- 11월 29일 겨울 김장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의 큰 근심거리를 덜어낸 정으로 나누었습니다. 올해는 약 3,000여 포기 김장을 하여 484가구에 각 15kg씩 노인·시각장애인, 청소년 복지시설 4개소에 전달하였습니다.

⑦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비의 등 밝히기(관등) 운동

- 맑고 향기롭게 초창기 진행하였던 어려운 이웃을 위한 관등 밝히기 운동을 되살려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자신이 아닌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자비의 등 밝히기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⑧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사례관리 진행

- 반찬 나눔 대상자를 비롯하여 관내 거주 중인 분들 중에서 특별히 주의와 관심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하여 정기적으로 사무국에서 전화 및 방문하여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아름다운 마무리 대상으로 연계하였습니다.

⑨ 라오스 댄 붕괴 수재민 구호 성금 전달

- 불교국가 라오스에서 일어난 댄 붕괴사고로 인해 피해와 아픔을 겪고 있는 수재민들에게 중앙모임에서는 8월 7일 작은 위로와 용기를 전하는 마음으로 BTN 불교TV에 구호 성금을 전달하였고, BTN 붓다회는 8월 28일 라오스대사관에 모어진 성금을 전달하고, 하루빨리 복구가 이뤄지길 기원하였습니다.

⑩ 에너지 빈곤층 490여 가구에 냉방매트 전달

- 국내 구조사업으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가 급증하여, 8월 9일 에너지 빈곤층 490여 가구에 냉방매트를 전달하였습니다.

⑪ 나눔의 기부문화 캠페인 "아름다운 마무리" 진행

- 복지 사각지대 사례를 발굴하고,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등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월간 '맑고 향기롭게'에 지속적으로 소개하여 모금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⑫ 다음 카카오 '같이가치', 네이버 '해피빈' 온라인 모금 캠페인

- 매일 아름다운 마무리 선정 대상자를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같이가치'에 모금함을 개설하였으며, '네이버-해피빈'에서 온라인 모금을 전개하였습니다.



⑬ 동전 모금 캠페인 진행

가정이나 회사 서랍 속에서 사용되지 않는 동전을 모아 빈곤층 노인 지원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길상사 방문객들에게 동전 저금통을 나눠드리고 모금을 전개하였습니다.

⑭ 청소년 봉사자와 독거노인과의 '아름다운 만남'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으로 청소년과 독거노인이 결연하여 자발적인 정기 방문을 통해 청소, 말벗, 산책 등의 재가봉사활동 진행하였습니다.

⑮ 월곡청소년센터 위탁 운영

청소년 복지시설(청소년 공부방)로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과 문화·체육공간을 제공하고, 부설로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하여 지역 초등학생들을 위한 학습, 예능,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월곡청소년센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⑯ 정기 재정 후원 사업

- 부름의 전화(중증 장애인 이동 지원 봉사단체) 정기 후원
- 서울지방변호사협회 결연 청소년 지원
- 제주도 극빈 어르신 정기 물품 지원
- 자혜원(아동 양육시설) 후원
- 인도 다람살라 잠양(jamyang) 비구니 스님 학교 후원

자연 사업

① 숲가행 - '맑고 향기로운 암자를 찾아서' 진행

한국의 대표적인 수행터인 암자를 둘러보며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고 본래의 나를 찾아보는 계기가 되어보자는 취지로 4월에서 10월 넷째 토요일에 '맑고 향기로운 암자를 찾아서' 정기 숲가행을 진행하였으며, 10월 15일은 중앙모임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법정 스님의 출가 본찰인 송광사와 무소유를 집필하셨던 불일암을 참배함으로써 법정스님과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의 첫 마음을 되새겨 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② 천연화장품 만들어 쓰기 강좌

천연화장품(로션, 에센스, 스킨) 및 천연 세제(삼투, 비누)를 직접 만들어 쓰는 강좌로서, 짝수 달 매주 수요일 세계일화실에서 진행하였습니다.

③ 의류 재활용 리폼 활동

기증받은 헌 의류, 불량 및 자투리 원단 한복 천으로 매주 화요일 봉사자들이 세계일화실에서 가방, 소품, 잡화 등을 만들어 맑고 향기로운 가계와 녹색 나눔 장터에서 판매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④ 녹색 나눔 장터 및 '맑고 향기로운 가계' 친환경용품 판매

길상사 경내 '맑고 향기로운 가계'와 미니장터를 개최하여 친환경 세제, 리폼 상품, 천연화장품 등을 판매하고 홍보하였습니다.

⑤ 사랑나눔 종교연합바자회 참여

10월 13일(토)에 성북동 진입로에서 진행된 '사랑 나눔 종교연합바자회'에 참여하였습니다. 먹거리 부스로는 반찬 나눔 봉사팀에서 엄마의 정성과 손맛이 가득 담긴 연잎밥과 김치, 각종 찜갈 및 주전부리를 준비하였고, 리폼 봉사팀과 사무국이 함께 친환경 화장품 및 리폼물품을 제작하여 판매하였습니다. 수익금은 전액 길상사에 전달하여 성북구 관내 장학생을 선정하여 장학금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맑고 향기롭게 후원금 소득공제 안내

(사)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는 우리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두루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려는 이들의 순수 시민단체로서 100% 회원들의 재정 후원에 힘입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모임은 회원 개개인이 자신과의 약속으로 정기, 비정기 후원, 후원 금액 결정, 후원 방법 선택(CMS 자동이체, 온라인, 지로) 까지 스스로 합니다. 또한 설립 목적(정관)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활동'하는 모임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종교 법인으로 인가되어 소득 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지정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달력 발송 안내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 중앙모임은 10월 말을 기준으로 연간 최소 3만 원 이상 후원해 주신 회원님에게 새해 탁상달력을 11월 16일 발송해드렸습니다. (10월 말일까지 후원이 없고 11월 ~ 12월 말에 3만 원 이상 후원하신 분은 2019년 1월 중순에 배송해드립니다.) 본 모임에 후원하시면서도 개인 사유로 우편물을 수신 거부하신 회원님의 경우 달력 발송이 누락될 수 있으니, 달력을 받지 못한 경우 중앙모임 사무국으로 전화 주시면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맑고 향기롭게 달력은 회원님의 소중한 후원금으로 제작되기에 1부씩만 증정하니 너그럽게 이해 바랍니다.

맑고 향기롭게 후원회원 2019년 탁상

길상사 벽걸이 달력은 길상사 창건 기념 법



회(12월 16일(일))날부터 길상사 중무실에서 수시로 배포해드릴 예정입니다. 새해 달력은 불교미술가 이가온 작가의 작품으로 디자인 하였습니다.

대학생 봉사활동 지원 사업 '나누는 기쁨' 경희대 주거환경개선 동아리 <미라클 팀> 봉사활동 진행

11월 10일, 경희대학교 주거환경개선 동아리 미라클이 '맑고 향기롭게' 봉사활동 지원 사업에 당선된 후 두 번째 희망의 집고치기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어르신 댁을 방문하여 특하나 곰팡이가 심했던 창고의 벽지와 장판을 새것으로 교체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페인트칠이 되어있던 거실은 어르신께서 다른 복지관에서 미리 받아두셨던 페인트를 이용하여 새롭게 칠했습니다. 흰색으로 새로 칠하고 나니 깔끔해진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모든 활동은 동아리원들이 직접 시공했으며 도배에 익숙치 않은 봉사자들은 페인트칠을 하는 등 서로 힘을 합쳐 두 번째 봉사활동도 무탈하게 마쳤습니다. 봉사가 다 끝난 후 깨끗해진 집에서 화사하게 웃으시는 어르신의 모습과 보람을 느끼는 대학생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대학생들이 지속적인 봉사를 통해 맑고 향기로운 정신을 익히고 세상에 전파할 수 있도록 '맑고 향기롭게'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맑고 향기로운 삶을 사는 일에 뜻을 함께해주세요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활동에 대한 의

견이나 제안, 궁금한 점이 있으면 본 모임 홈페이지 회원제안 게시판을 이용해주세요. 그리고 회원님의 변경된 정보(주소, 전화번호 변경 등)나 직접 발간하신 저서, 글,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 등이 있으면 사무국으로 방문 또는 전화, 편지, 전자 우편으로 알려주세요. 또한, 청정한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더욱 맑고 향기롭게 가꿀 수 있는 여러 활동이나 참신한 아이디어 공유해주시길 분과의 만남을 기다립니다.

맑고 향기롭게 정기 자원활동 봉사자 모집

*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조리 활동

(사)맑고 향기롭게는 우리 주변에 홀로 사는 어르신, 장애인, 결혼가정 500여 가정에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반찬 27지를 나누고 3월에서 10월 둘째 목요일에는 배추김치를 나누고 있습니다. 또한 반기별로 농협상품권과 명절에는 생필품을 나누고 연말에는 김장 김치를 나누고 있습니다.

* 진인 노인요양원 자원활동

진인 노인요양원 자원활동은 오전에는 시설 청소, 주방 봉사를 하고, 오후에는 어르신과 어울려 민요, 국악 등 놀이 활동으로 진행됩니다. 매월 둘째 토요일 오전 8시 30분, 안국역 1번 출구 옆 골목에 모여 이동합니다.

* 서울노인복지센터 자원활동

서울 종로구 안국역 옆에 위치한 어르신 이용 시설 서울노인복지센터가 10월 15일부터 연말까지 내부 공사로 인해 운영을 중단합니다.

당분간 봉사활동이 중지되오니 이 점 속지하시길 바랍니다. (날짜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아름다운 만남 - 청소년 자원활동

'아름다운 만남' 자원활동은 노인 자살예방 캠페인 '아름다운 마무리'의 연장선상으로, 본 모임에서 밀반찬이나 전화 말벗 등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집을 청소년 봉사자들이 직접 방문하여 다양한 정서적 지지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관심 있는 청소년 봉사자를 수시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 의류 리폼 자원활동 봉사자 모집

맑고 향기롭게 의류리폼 자원활동은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작은 환경운동으로 안 입고, 못 입는 자투리 천을 이용하여 각종 소품이나 재활용품을 만들어 길상사 경내에 개점한 '맑고 향기로운 가게'를 통해 판매하고, 수익금은 세상 사업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길상사내 세계일화실에서 오후 12시부터 4시까지 의류리폼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하실 봉사자를 찾습니다.

간편한 CMS 후원

금융결제원의 중개를 통해 후원자님의 계좌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 모임으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사무국으로 직접 방문 혹은 본 모임 홈페이지에서 CMS후원 가입을 신청하면 됩니다.

자동이체 후원

후원자님이 원하시는 일자에 매월 일정 금액이 본 모임으로 입금되도록 하는 후원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을 지참하고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후원금액 변동이나 중단 시 신청하신 은행에 직접 가셔야 합니다.

일시 후원

뜻 깊은 일이나 기념일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경우, 정기적인 후원이 부담되는 경우, 본모임 회원은 아니지만, 활동에 공감하여 일시적으로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 다달이 소식을 받아보는 우편비로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에 직접 본모임 후원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입니다. ※ 본모임 회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분 중에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필요하신 분은 인적사항이 필요하므로 사무국으로 연락해주세요.

지로 후원 안내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우편 배송되는 지로용지나 지로 번호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본 모임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로 번호 : 7618372

지로 번호로 은행에 가지지 않고도 인터넷(www.giro.or.kr)에 접속하여 직접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12월 중앙모임 정기 활동 안내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소식지 우편 발송 자원활동 : 4일(화)~오전 10시~12시(세계일화실)

- 길상사 창건 2주년 기념법회 : 12월 16일 (일)/오전11시/극락전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자원활동 : 매주 목, 금요일/오전 9시 30분~오후 2시
- 서울노인복지센터 점심 무료급식 자원활동 : 반박식당 내부 공사 관계로 잠정 중단
- 진인 노인요양원 원내 청소 및 오후 놀이마당 정기 자원활동 : 둘째 토요일(8일)/오전 8시 30분/안국역 1번 출구 옆 골목
- 아름다운 만남(청소년과 독거어르신과의 만남) : 셋째, 넷째 토요일 (15, 22일)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의류 재활용 봉사모임: 매주 화요일/오후 12시/세계일화실
- 천연화장품 만들기 강좌 : 짝수 달 매주 수요일/오후 1시 30분/세계일화실

<정기 재정 후원>

- 시각장애인 호송 단체 '부름의 전화' 정기 후원
- '월곡 청소년 센터' 위탁운영 및 물품 후원
- 서울 지방 변호사협회 결연 청소년 지원
- 제주도 극빈 어르신 정기 물품 지원
- 자혜원(아동 양육시설) 후원
- 인도 다람살라 잠양(jamyang) 비구니스님 학교 후원

후원계좌안내 (CMS, 계좌입금)

- '길이 열리는 만큼 물이 흐르듯 본 모임의 사업은 100% 회원님의 후원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사)맑고 향기롭게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활동소식을 비롯하여 법정 스님의 글과 삶 의 지혜가 담긴 알차고 유익한 월간 '맑고 향기롭게'을 정기적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 ◆ 일반사업 후원계좌
국민은행 817-01-0253-129
KEB하나은행 201-890400-87705
농협 029-01-199412
- ◆ 아름다운 마무리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13-787953
- ◆ 장학금 후원계좌
KEB하나은행 220-890015-10204

- ◆ 결식이웃 후원계좌
국민은행 817-01-0255-458

- 예금주 : (사)맑고 향기롭게
- * 후원하신 금액은 연말정산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 02.741-4696 / 홈페이지 : www.clean94.or.kr
- 이메일 : clean94@hanmail.net
- 주소 : 서울 성북구 선잠로5길 68 길상사내

대구모임 (053-753-8883)

- 대구모임 2층은 회원모임 공간과 사무실로 3층은 법정스님 자료와 도서, 대중강연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3층공간은 대관으로 공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홀로 어르신 말벗반찬 조리, 배달 및 말벗 나눔: 매주 수요일 / 음식조리활동(10시~13시), 배달 및 말벗활동(19시~21시)
 - 연꽃 피는 집(치매노인 요양시설) 정기방문자 원봉사활동 : 매월 셋째 화요일/ 대구은행본점 앞 9시 출발 / 목욕, 식사도움, 빨래장리, 말벗
 - 청도 운문사 봉사 : 매월 둘째 주 금요일 9시/ 대구은행 본점 앞 9시 / 공양 준비 및 공양재료 다듬기, 청소 등
 - 햇살청소년지원사업 :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청소년 물품 및 문화정서 지원 / 분기별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과정과 함께 영상 및 문화기행
 - 정기 자원 활동가 모집
(사)맑고 향기롭게 대구모임은 소외된 이웃에게
-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삶의 행복을 찾고자 하는 분들의 참여를 수시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 * 홀로어르신 반찬 조리봉사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 * 맑고향기롭게(소식지)발송 : 매월 초
 - * 사육 관리 및 청소 : 월중 수시
 - * 홀로어르신 반찬 나눔 배달봉사: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 맑고 향기롭게 대구모임 서로배움터 '맑고 향기로운 일곱 빛깔 아카데미 강좌' 안내 - 12월 14일(금) 저녁 7시 / MC달래 (전문 사회자, 푸른방송 케이블TV 리포터)
'엄마가 즐거우면 아이들도 행복하다.'
 - 법정 스님 책임기모임 '일기일회' 함께해요
매월 셋째 주 금요일 저녁 7시에 회원들이 함께 모여, 법정 스님의 저서 읽기 모임인 '일기일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정 스님의 말씀과 지혜를 책에서 배우고 나누는 시간을 함께 할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후원 : 대구은행 002-05-016277-8 (사)맑고 향기롭게 대구지부



경남모임 (055-266-0170)

- **결연가정 후원**: 월 생활비 지원, 밑반찬 및 김장김치 나누기 /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오후 4시/명절 및 가정의 달 세대 방문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장학금 후원**: 결연세대 청소년 장학금 지원
- **외부 시설 봉사활동**
-보현행원 : 무료노인요양원으로 매월 셋째 수요일 말벗 및 빨래 노력봉사 / 오전 9시 30분 사무국 출발
-사비복지회관 : 무료급식소(자비 공양의 집), 매월 넷째 주 화요일과 매주 토요일에 점심준비 및 설거지, 배식 봉사 / 오전 10시~오후 2시
-해 뜨는 교실 : 봉림 청소년 문화의 집, 저소득층 공부방으로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5시 학습지도 및 간식 지원/초등·중등 40명 지원
- **천연화장품 만들기 모임**: 매월 첫째, 둘째 금요일 진행/오후1시30분/사무국
- **친환경 수세미 나누기**: 매월 둘째 화요일 모임 및 친환경 수세미 판매
- **유안부 할머니 지원활동**: 지역 내 홀로 생활하시는 유안부 할머니 찾아뵙기 및 지원활동
- **선 수련 모임**: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 열린법당 마하연,
- **회원 만남의 날**: 매월 넷째 수요일 오전 11시 / 사무국
- **정기 후원자 및 자원 활동가 수시 모집**

후원 : 농협 932-01-002933

(사)맑고 향기롭게 경남지부

광주모임 (062-236-3129)

- **점심공양나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령, 저소득,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천원의 밥상(점심)운영/오전9시30분~오후2시/봉사자 및 후원자 모집 (김치 담그기 / 매주 토요일 공양 나눔 센터)
- **자비의 도시락 나눔 활동**: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세대를 위한 도시락 나눔
- **광주모임에서는 동구 신수동에 지역 회원들 의친목과 불자들의 소통, 나눔의 공간으로 맑고향기로운가게 무소유 찻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님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독서모임**: 법정 스님의 저서를 매월 선정하여 읽고 회원들과 함께 교류/매월 둘째 수요일/사무국
- **노래모임**: 건전가요, 명곡 노래 교실
- **장학사업**: 가정환경이 어려운 고등학생을 선발하여 3년간 학비 전액 지원
- **장터 및 바자회 운영**: 회원 및 이웃 대상으로 생필품 교환 기증 헌 옷 판매, 농산물 직거래, 친환경제품 판매
- **쓰레기 줍기 캠페인**: 연중 회원 및 봉사자들과 주변환경 및 시정추진 쓰레기 줍기 캠페인 전개
- **천연화장품 만들기**: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 천연세숫비누, 빨래비누, 천연 화장품
- **정기 후원자 및 자원활동가 수시 모집**

후원 : 농협 355-0018-7812-13

(사)맑고 향기롭게 광주지부

길상사 소식 Tel:(02)3672-5945 / Fax:(02)3672-5947

관음재일

- 일시: 12월 1일(토) 오전 9시 50분
- 장소: 극락전
- 매달 관음재일에는 인등접수자 축원이 있습니다.

천수다라니 33독 기도

- 일시: 12월 1일(토) 오후 6시 ~ 8시 30분
- 장소: 극락전
- 한 가지 소원의 성취를 일념으로 발원하고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독송하면 관세음보살의 가피력으로 원하는 바가 속득성취되는 영험한 기도가 천수다라니 기도입니다.
- 개인 축원입니다.
- 공양물(떡, 꽃, 쌀 등) 설판 받습니다.

초하루기도 및 법회

- 일시: 12월 7일(금) 오전 9시 50분
- 장소: 극락전

삼천배 철야정진

- 일시: 12월 8일(토) 오후 8시 00분 ~12월 9일(일) 새벽 3시 50분
- 장소: 극락전

길상사 창건 2주년 기념법회

- 12월 16일(일) 오전 11시
- 장소: 극락전

보름기도

- 일시: 12월 21일(금) 오전 9시 50분
- 장소: 극락전

지장 천일기도 6회차 입재

- 일시: 12월 22일(토) 오전 9시 50분
- 장소: 지장전

동지기도

- 일시: 12월 22일(토) 오전 9시 50분
- 장소: 극락전

지장재일

- 일시: 12월 24일(월) 오전 9시 50분
- 장소: 지장전

관음재일

- 12월 30일(일) 오전 9시 50분
- 장소: 극락전
- 매달 관음재일에는 인등접수자 축원이 있습니다.

12월의 길상사 정기 법회 기도

기도명/법회	날짜	시간	장소
관음재일	12월 1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다라니 기도	12월 1일	오후 6시 ~ 8시 30분	극락전
초하루 법회	12월 7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삼천배 철야정진	12월 8일	저녁 8시 ~ 새벽 3시 50분	극락전
불교입문 37기 수계식	12월 8일	오후 2시	설법전
길상사 창건21주년 기념 법회	12월 16일	오전 11시	극락전
보름기도	12월 21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지장 1000일기도 5회차 회향	12월 21일	오전 9시 20분	지장전
지장 1000일기도 6회차 입재	12월 22일	오전 9시 50분	지장전
지장재일	12월 24일	오전 9시 50분	지장전
관음재일	12월 30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극락전기도	매 일	새벽 4시/오전 9시 50분/저녁 7시	극락전
지장전기도	매 일	새벽 4시 40분/오전 9시 50분/저녁 7시	지장전
일요가족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설법전
청년회법회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세심당
중·고등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세심당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소강당
새신도 교육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소강당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 후원 안내

‘같이 열리는 만큼 물이 흐르듯 본 모임의 사업은
100% 회원님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는 사업에 뜻을 함께 해주세요.

정기후원/ 편리한 CMS 자동이체 신청하기

정기 후원 회원
가입

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 접속 가입서 작성
맑고 향기롭게 사무국 방문 가입서 작성
www.clean94.or.kr

온라인 후원

중앙모임
02-741-4696

- 일반사업 후원계좌
국민 817-01-0253-129
KEB하나 201-890400-87705
농협 029-01-199412
- 결식이웃 후원계좌 국민 817-01-0255-458
- 아름다운 마무리 후원계좌 신한 100-013-787953
- 장학금 후원계좌 KEB하나 220-890015-10204

대구모임
053-753-8883

대구 002-05-016277-8

광주모임
062-236-3129

농협 355-0018-7812-13

경남모임
055-266-0170

농협 932-01-002933

* 후원하신 금액은 연말정산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직접 자동이체를 신청하신 경우에는 (사)맑고 향기롭게 지부 사무국으로 전화주셔서
회원등록 절차를 진행해주셔야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드릴 수 있습니다.



길상사 창건 21주년 기념 법회



12월 16일(일) 오전 11시 / 극락전

절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안으로 수행하고
밖으로 교화하는 청정한 도량입니다.

어떤 종교 단체를 막론하고
시대와 후세에 모범이 된 신앙인들은
하나같이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 신앙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주어진 가난은 우리가 이겨내야 할 과제이지만
선택된 맑은 가난, 곧 청빈은 아름다움입니다.

풍요 속에서는 사람이 병들기 쉽지만
맑은 가난은 우리에게 마음에 평화를 이루게 하고
올바른 정신을 지니게 합니다.

이 길상사는 가난한 절이면서도
맑고 향기로운 도량이 되었습니다.
불자들만이 아니라 누구나 부담없이 드나들면서
마음의 평안과 지혜를 나눌 수 있었으면 합니다.

- 法 頂 -

흐리고 거친 세상에서 맑고 향기로운 도량을 이루고자 삼각산 자락에 향 사르며 吉祥의 문을 활짝 연 지 어느덧 21주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세월동안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를 아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여러 불자님과 함께 길상사의 창건을 축하하고자 하오니, 수회동참하시어 평안과 지혜를 나눌 수 있었으면 합니다. 법회 후에는 기념품으로 2019년 달력을 나누어 드립니다.